

# 최근 經濟動向

## 이 규 철

### I. 주요업종별 동향

#### ◇ 자동차(自動車)

'99년 3월중 자동차 산업은 수출이 다소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內需販賣)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일부 자동차 생산업체의 판매영업도 점차 정상화 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은 내수판매의 회복으로 재고가 적정수준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36.3%나 증가한 214천대에 달해 IMF체제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내수(內需)는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심리 회복과 業界의 新車出市 및 다양한 할부제의 도입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48.8% 增加한 92천대에 달하였다. 차종별로는 상용차의 경우 그동안 가장 부진하였던 소형 자동차가 경기회복과 신차효과 등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을 비롯 중대형 승용차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하였다.

商用車도 경소형의 버스가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75.4%나 증가하고 트럭도 물류수요 증가에 힘입은 중소형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45.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輸出)은 자동차업계의 新車투입과 수출회복 등에 힘입은 對美輸出 호조에도 不拘하고 對開途國 상용차의 수출부진과 一部車種의 현지 재고조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한 111천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신규 투입된 신차의 품질개선에 따른 國產車의 이미지(image) 改善과 품질보증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9.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유럽지역도 輕車輸出 호조로 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중남미지역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43.1%, 43.3%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 밖에 아시아지역은 말레이시아로의 승용차 수출 증가로 그 동안의 침체에서 다소 회복되었다.

#### ◆ 자동차 ◆

(台, %)

	1998. 3월			1999. 3월			'99.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157,137	1.9	△42.3	214,147	26.5	36.3	570,753	31.2
• 出荷	176,894	43.1	△23.7	203,366	38.5	15.0	494,336	25.6
(內需)	62,146	26.5	△48.1	92,464	27.0	48.8	243,184	55.5
(輸出)	114,748	54.1	2.4	110,902	49.8	△3.4	251,152	5.8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전기/전자

'99. 3월중 전자제품 수출은 산업용 전자와 전자부품이 전월에 이어 호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전자도 오랫동안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한 4,01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4분기중 누계로도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한 10,77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산업용 전자수출은 무선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유선통신기기와 컴퓨터등이 모두 성장세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34.0% 증가한 1,008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동전화기 수출은 세계적으로 품질이 호평을 받으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선통신기기는 구미지역의 好況과 우크라이나, 홍콩, 호주 등지로의 수출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월에 부진을 면치 못 하였던 컴퓨터는 低價品 위주의 수출전략이 대규모 판매로 이어져 모처럼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자부품은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전자관, 기구부품 등이 호조를 보여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한 2,43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도체의 수출은 팬티엄급 이상 고성능 컴퓨터의 수요확대 등으로 成長이 지속되었다.

가정용 전자는 1~2월간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영상기기와 음향기기의 감소폭이 둔화 되었고 에어컨, 카세트라디오,

MP3등의 품목이 수출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모처럼 전년동월대비 3.9%의 증가세로 反轉되었다.

◇ 일반기계(一般機械)

3월중 國內 機械受注는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써 1/4분기 전체 기계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16.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은 공공제조의 발주증가(58.0%)로 45.2%의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민간부문에서는 造船의 발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3%의 증가세를 보였다. 3월중 기계수주의 이러한 높은 증가세로의 반전은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월중 일반기계 生産은 지난 1,2월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기계, 냉동공조기계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목공기계, 섬유기계,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의 생산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4분기 전체생산실적은 전년동기대비 9.0%가 감소한 것으로 集計되었다.

3월중 일반기계의 輸出入動向을 보면 輸出은 EU지역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0.1%가 증가한 82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기관 및 터빈, 용접기, 건설광산기계, 식품가공기계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농업용기계, 섬유기계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 전 자 ◆  
(百萬 달러, %)

	1998. 3월		1999. 3월		1999.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3,338	7.9	1.8	4,016	19.1	20.3	10,770	15.9
(産業用電子)	752	6.5	△1.6	1,008	27.5	34.0	2,538	19.0
(電子部品)	2,038	8.3	7.2	2,438	13.5	19.6	6,847	19.7
(家庭用電子)	548	8.0	△10.6	570	31.9	3.9	1,395	△3.8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일반기계 ◆  
(百萬달러, %)

	1998. 3월		1999. 3월		1999.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823	15.9	△9.8	824	25.4	0.1	2,051	△2.4
輸 入	814	13.1	△47.1	786	50.9	△3.4	1,954	△9.9

輸入은 독일을 비롯한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4%가 감소한 786백만달러를 나타내었다. 품목별로는 농업용기계, 섬유기계, 금속공작기계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용접기, 식품가공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가공기계의 輸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鐵鋼)

'99년 3월중 粗鋼 生産量은 수요회복과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21.6% 증가한 3,473천M/T를 기록하였다. 轉爐 生産이 전월대비 10.8% 증가한 2,058천M/T, 電氣爐 生産은 1,415천M/T으로 전월대비 41.5%나 증가하였다. 누계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요가 아직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업계가 계획감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鐵鋼材 內需는 3월 들어 현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전기전자 등 관련수요산업 호조와 컬러강판 설비증설에 힘입어 전기아연도금강판 및 용융아연도금강판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석도강판은 식용 및 페인트·에어졸 등 잠판수요를 중심으로 3월 중 내수가 30%이상 증가하였다. 강판의 경우, 환율의 下落安定으로 업계가 수출을 自制하고 내수우선 판매함에 따라 1/4분기중 내수가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근과 H형강 등 조강류도 계절적 盛需期를 맞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鐵鋼材 輸出은 3월중 전년동월대비 31.1% 감소한 587백만달러에 그침으로써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품목에 걸쳐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3월중 22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73.7%증가)·석도강판(20백만달러, 26.3%)·전기아연도강판

(20백만달러, 7.9%)등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중국 수출이 3월까지 254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증가한 것 외에 주요수출시장으로의 실적은 대체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핫코일을 중심으로 한 鐵鋼材 輸入은 3월중 402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5% 증가, 9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들어섰다.

'98년 국내철강산업의 평균 가동률은 88.5%로 여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재(112.2%)·열연강판(93.5%)·기타도금강판(89.6%) 등의 가동률이 높았던 반면, 봉강(48.5%)·형강(48.7%)·강관(51.7%) 등의 가동률이 낮아 이들 부문에 대한 설비과잉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 ◆ 철 강 ◆

(千 M/T, 백만불, %)

	1998. 3월			1999. 3월			1999.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粗鋼生産	3,521	10.0	△2.4	3,473	21.6	△1.4	9,547	△4.9
輸 出	852	31.3	57.9	587	21.7	△31.1	1,547	△23.1

註) : 수출은 통관기준임

資料 :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 石油化學

3월중 석유화학산업은 물량기준으로 생산, 內需出荷, 수출이 모두 전월 및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1월과 2월의 회복세가 이어졌다. 생산의 경우 合成樹脂 등 3大 誘導品의 가동률은 88%로 전년동월 대비 4% 증가하였다. 內需出荷는 1월과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한 관련산업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3월중 내수출하 물량은 640천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기악화 이전인 97년의 월평균

수준(634천톤)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내수출하호조는 합성수지 가공업과 자동차 등의 생산증가와 아울러 전년의 수요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내수출하의 회복으로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合成樹脂와 合成原料의 호조에 힘입어 14.6%의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가격 수준이 전년 1/4분기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수출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3월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하였다.

한편 석유화학제품의 時勢는 3월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가격수준은 97년과 98년 수준에 비해 품목에 따라 톤당 최고 100달러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과잉설비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中國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수입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석유화학 ◆ (千M/T, %)

	1998. 3월			1999. 3월			1999. 1~3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1,188	11.3	13.1	1,235	5.8	4.0	3,640	7.8
• 出荷	1,142	6.4	13.7	1,274	9.8	11.6	3,565	9.1
(內需)	589	10.5	△12.1	640	6.3	8.7	1,845	7.7
(輸出)	553	2.4	66.1	634	13.6	14.6	1,720	10.5

◇ 非金屬鑛物

3월중 시멘트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한 3,902천M/T을 기록하여, 지난달보다 낮은 감소폭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수규모로 볼 때 여전히 내수회복이 기대보다 늦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생산도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한 3,911천M/T을 기록

함으로써 금년 들어 가장 낮은 감소폭을 나타내었다. 수출은 미국, 이집트로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417.4% 증가한 238천M/T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여전히 미미하여 7천M/T에 불과하였다.

한편, 99년 1/4분기중 시멘트업체들은 내수부진을挽回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출에 힘을 기울인 결과, 이 기간중의 시멘트 수출량(클링커포함)이 135만톤으로 전년 전체물량의 46.3%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시멘트업체들은 99년 수출목표를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60만톤으로 설정하여 수출증대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 비금속광물 ◆ (千M/T, %)

	1998. 3월			1999. 3월			1999. 1~3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4,115	58.8	△14.5	3,911	92.7	△5.9	8,182	△11.4
• 出荷	4,424	63.4	△20.0	4,140	106.4	△6.4	8,124	△9.4
(內需)	4,378	64.2	△19.8	3,902	124.5	△10.9	7,336	△17.2
(輸出)	46	12.2	△38.7	238	△11.2	417.4	788	609.9

◇ 섬유(纖維)

3월중 纖維輸出은 絲, 織物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홍콩의 경제 침체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纖維原料 수출은 중국 시장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31.3% 감소한 5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纖維絲 수출은 하절기수요에 맞추어 면사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주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 등 화섬장섬유사의 중국, 홍콩 및 EU 시장으로의 수출이 低調하여 전년동월대비 22.7% 감소한 126백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纖維製品의 輸出은 주시장인 美國시장에 대한 수출이 큰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EU시장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되어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한 429백만달러를 기록하였

다. 地域別로 보면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纖維製品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232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홍콩으로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4.7%, 26.0% 감소한 161백만달러, 14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輸入은 계절적 요인과 내수증가로 면사, 면직물, 인조섬유방직사, 인조단섬유 직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한 26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 조선(造船)

3월중 國內 造船業界의 受注量은 해운시장의 침체지속과 초대형유조선에 대한 수주 프로젝트의 遲延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2.2% 감소한 13척 103천G/T를 기록하였다.

船種別로 보면, 소형 화물선 등 13척 130척 G/T에 그쳤으며, 그 외의 다른 船種은 수주를 못 하였다.

3월중 建造실적은 勞使關係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동월대비 52.2% 증가한 16척 889천G/T를 기록하였으며, 3월말 受注殘量은 前年同月對比 9.0% 증가한 309척 19,224천G/T로써 향후 약 2년동안은 충분한 일감이 확보된 것으로 안정적인 操業 維持가 예상된다.

◆ 조 선 ◆  
(千G/T, %)

	1998. 3월			1999. 3월			1999. 1~3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注	467	2.6	△13.8	130	△56.4	△72.2	828	△10.3
• 建造	584	3.9	7.2	889	26.1	52.2	2,815	81.7
• 受注殘量	17,637	△0.4	31.0	19,224	△4.0	9.0	19,224	9.0

### ◇ 해운(海運)

3월중 건화물운임지수 MRI는 전월의 195.8에서 8.9포인트 상승한 204.7을 나타냈

다. 이같은 상승세는 금년들어 침체를 지속하였던 벌커시황이 3월들어 대서양수역에서 강세를 보임에 따른 것이다.

Capesize급은 대서양 및 태평양수역에서 강세를 유지하였고, 3월말에는 R.Bay(호주)-Rotterdam(네덜란드) 및 Q'land(호주)-Japan의 석탄운임은 각각 톤당 4.9\$, 3.85\$로 2週사이 8~12% 上昇하였다.

향후 市況은 장기적으로는 약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부활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유럽 용선주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소폭이나마 운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Panamax급은 US/Gulf 및 남미의 곡물 선적 활동 증가로 3월 중순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中旬 以後 신규 수요가 줄어들면서 停滯를 보였다.

Handysize급은 3월초/중순 대서양수역에서 US/Gulf와 남미 선적 곡물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임이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태평양수역에서도 대서양수역에서의 영향과 시멘트 등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건설한 상승세를 보였다.

탱커 운임지수 WS(World Scale)는 전월의 61.3보다 7.1포인트 하락한 54.2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OPEC 産油國들의 원유 생산 감축의 영향이 커 4월 초순 VLCC(초대형유조선) 운임은 年中 最低値를 보였다. 그리고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뿐만 아니라 原油 수입국의 높은 재고수준, 부활절 휴일 등이 운임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 한국 정유업체들의 정기 유지보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당분간 市況침체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나, 탱커의 해체량이 증가하고 있어 2~3개월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Ⅱ. 대외거래(對外去來)

### 1. 수출(輸出)

4월중 輸出은 세계 경기침체, 원화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과 전년동월의 수출이 큰 규모인 점, 하루가 적은 통관일수에 기인하여 전월(△2.7%)보다 감소세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

비 3.6% 감소한 116.3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4월 수출(△5.2%)은 1/4분기 수출(△5.9%)보다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4월중 수출신용장(L/C)내도는 석유제품(△70.2%), 철 및 철강(△3.2%) 등은 감소하였으나, 타이어·튜브(124.3%), 기계류(62.3%) 등 주요품목이 크게 증가하여 전월

### 對 外 去 來

(억달러, %)

	98年	98.4月	98.1~4月	99.3月	99.4月p	99.1~4月p
通 關 輸 出 (增 加 率)	1,323.1 (△2.8)	120.6 (5.8)	442.9 (7.7)	116.9 (△2.7)	116.9 (△3.6)	419.7 (△5.2)
通 關 輸 入 (增 加 率)	932.8 (△35.5)	82.1 (△35.9)	318.6 (△36.1)	93.0 (12.2)	90.7 (10.5)	346.4 (8.7)
輸 出 入 差	390.3	38.5	124.3	23.9	25.6	73.3

註: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品 目 別 輸 出

(通關基準, 억달러)

	98.3月	98.1~3月	99.3月	99.1~3月
全 體 輸 出	120.1 (6.0)	322.3 (8.4)	116.9 (△2.7)	303.4 (△5.9)
食 料 및 消 費 財 原 料 및 燃 料	2.4 (△10.0)	6.3 (△6.5)	2.2 (△5.9)	6.0 (△6.1)
石 油 製 品	7.3 (2.9)	23.2 (21.8)	5.4 (△25.5)	14.1 (△39.0)
重 化 學 工 業 製 品	4.4 (△11.5)	12.9 (△6.0)	3.6 (△17.4)	9.8 (△24.0)
電 氣 電 子 製 品 ( 半 導 體 )	79.9 (7.2)	207.2 (6.3)	83.5 (4.5)	214.6 (3.6)
( 情 報 通 信 機 器 )	30.4 (3.6)	84.8 (2.7)	36.2 (19.3)	97.5 (15.0)
機 械 類 와 精 密 機 器	14.5 (13.6)	40.8 (12.7)	16.0 (10.1)	46.3 (13.4)
鐵 鋼 및 金 屬 製 品	7.5 (△5.6)	21.8 (△2.4)	11.3 (50.2)	28.3 (29.9)
化 工 品	8.7 (△4.0)	22.5 (5.0)	10.0 (14.7)	25.5 (13.3)
乘 用 車	11.2 (36.8)	27.7 (18.9)	8.9 (△20.0)	23.4 (△15.7)
輕 工 業 製 品	8.6 (12.5)	23.6 (11.5)	7.6 (△11.7)	20.8 (△11.6)
織 維 絲	7.1 (△3.2)	14.9 (△1.8)	6.7 (△5.5)	15.7 (5.5)
織 物	30.6 (5.2)	85.6 (11.9)	25.8 (△15.6)	68.7 (△19.8)
金	1.6 (△0.1)	4.6 (3.7)	1.2 (△22.9)	3.2 (△30.4)
衣 類	7.6 (△10.1)	19.2 (△11.6)	6.5 (△13.8)	16.1 (△16.3)
종 류	6.7 (25.2)	23.6 (78.9)	3.8 (△42.8)	11.5 (△51.3)
고 무 타 이 어 · 튜 브	3.3 (15.5)	8.7 (9.1)	3.4 (5.3)	9.7 (10.9)
	1.7 (35.0)	4.2 (25.8)	1.5 (△7.8)	4.1 (△1.1)
	1.4 (10.3)	3.6 (12.3)	1.4 (△2.1)	3.6 (△1.3)

註: 관세청 분류기준에 의함

(△9.2%)보다 감소세가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5.7% 감소한 5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3월중 品目別 수출을 살펴보면 輕工業製品은 衣類(5.3%) 등은 증가하였으나, 섬유사(△22.9%), 직물(△13.8%)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5.6% 감소한 25.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은 철강 및 금속제품(△20.0%), 화공품(△11.7%)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10.1%), 정보통신기기(50.2%) 등 전기전자제품(19.3%)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보다 4.5% 증가한 83.5억달러를 기록했다.

## 2. 수입(輸入)

4월중 輸入은 산업생산 증가, 국내소비회복에 따른 자본재, 소비재 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한 90.7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4월중 輸入信用狀(L/C) 개설은 원유(9.8%), 기계류(18.8%), 철 및 철강(53.5%) 등이 증가하고 석유제품(△29.4%), 금속광(△26.0%)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한 57.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3월중 品目別 수입을 살펴보면 消費財는 곡물(△14.1%)의 수입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직접 소비재(58.6%), 내구소비재(4.7%)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11.1억달러)보다 8.9% 증가한 12.1억달러를 기록하였고, 原資材는 원유(△10.0%)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경공업원료(9.6%), 화공품(8.9%)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40.6억달러)보다 2.5% 증가한 41.6억달러를 나타냈으며, 자본재는 정보통신기기(78.6%), 반도체(21.5%) 등의

品目別輸出

(通關基準, 억달러)

	98. 3月	98. 1~3月	99. 3月	99. 1~3月
全體輸入	82.9 (△36.5)	236.5 (△36.2)	93.0 (12.2)	255.7 (8.1)
原資材	40.6 (△35.9)	123.9 (△33.4)	41.6 (2.5)	118.7 (△4.2)
原油	9.9 (△45.2)	32.9 (△37.2)	8.5 (△10.0)	26.1 (△20.7)
化工	7.4 (△31.0)	20.7 (△29.4)	8.1 (8.9)	21.6 (4.1)
鐵鋼材	3.2 (△75.7)	10.2 (△29.8)	3.4 (6.3)	10.1 (△0.9)
輕工業原料	3.3 (△32.7)	9.5 (△34.5)	3.6 (9.6)	9.4 (△1.9)
資本財	31.2 (△36.3)	85.9 (△36.1)	39.3 (26.0)	103.1 (20.0)
電氣電子製品	18.8 (△21.0)	51.3 (△24.1)	25.0 (32.9)	68.6 (33.7)
(半導體)	10.6 (1.7)	28.4 (△3.3)	13.1 (21.5)	38.4 (35.2)
(情報通信機器)	2.8 (△47.6)	8.1 (△47.5)	5.1 (78.6)	12.8 (58.1)
機械類와精密機器	9.2 (△49.5)	26.5 (△47.8)	10.8 (△17.5)	26.8 (1.0)
消費財	11.1 (△39.3)	26.7 (△46.6)	12.1 (8.9)	33.9 (27.0)
耐久消費財	6.0 (△38.7)	11.7 (△53.6)	6.3 (4.7)	17.8 (52.4)
金	4.1 (△28.3)	6.1 (△56.9)	4.0 (△2.5)	12.0 (96.7)
直接消費財	1.7 (△50.6)	5.1 (△50.2)	2.7 (58.6)	7.6 (50.2)
穀物	2.4 (△4.0)	6.9 (△4.4)	2.0 (△14.1)	5.6 (△19.7)
非耐久消費財	1.0 (△60.1)	3.0 (△59.0)	1.0 (1.6)	2.8 (△5.4)

註)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31.2억달러)보다 26.0% 증가한 39.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3. 地域別 輸出入

3월 중 지역별 수출동향은 미국(9.3%)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일본(17.7%), EU(8.6%) 등이 각각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여 선진국 전체로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56.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대개도국 수출은 동남아지역(6.5%)의 증가를 제외하고 중국(△1.6%), 중동(△32.5%), 중남미(△15.6%)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60.0억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地域別 輸入을 살펴보면 對先進國 輸入은 미국(17.6%), 일본(22.2%) 등이 증가하고, EU(△0.2%)도 감소세가 둔화 되어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對開途國 수입은 중동(△18.2%)을 제외한 동남아(24.6%), 중국(12.9%), 중남미(10.1%)가 각각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12.8% 증가한 34.4억불을 기록했다.

### 4. 국제수지(國際收支)

3월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28.9억달러) 흑자 폭의 확대 등으로 黒子規模가 전월(24.0억 달러)보다 증가한 26.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수입이 전월 감소(△14.4%)에서 증가(10.0%)로 돌아섰지만 수출이 전월(△14.4%)보다 감소세가 둔화(△0.3%)되어 흑자규모가 전월(24.0억달러)보다 확대된 28.9억달러를 기록했다.

### 地域別 輸出入

(通關基準, 억달러)

		98. 3月	98. 1~3月	99. 3月	99. 1~3月
先 進 國	輸 出	56.0	158.5	56.9	151.1
	(增減率)	(13.3)	(23.4)	(1.6)	(△4.7)
	輸 入	52.4	14.0	58.6	158.0
	(增減率)	(△34.6)	(△36.9)	(11.9)	(13.1)
輸出入差		3.7	18.8	△1.7	△6.9
美 國	輸 出	20.0	52.0	21.8	58.2
	(增減率)	(15.3)	(14.7)	(9.3)	(11.9)
	輸 入	18.2	48.3	21.4	58.4
	(增減率)	(△38.2)	(△36.6)	(17.6)	(20.9)
輸出入差		1.8	3.7	0.5	△0.2
日 本	輸 出	10.6	30.7	12.5	32.6
	(增減率)	(△23.5)	(△15.5)	(17.7)	(6.2)
	輸 入	15.7	42.0	19.2	48.8
	(增減率)	(△36.4)	(△39.7)	(22.2)	(16.1)
輸出入差		△5.1	△11.4	△6.7	△16.2
E U	輸 出	14.5	41.1	15.8	41.6
	(增減率)	(10.2)	(22.0)	(8.6)	(1.1)
	輸 入	10.1	29.7	10.1	28.2
	(增減率)	(△36.7)	(△35.1)	(△0.2)	(△5.1)
輸出入差		4.4	11.4	5.7	13.4
開 途 國	輸 出	64.0	163.8	60.0	152.3
	(增減率)	(0.4)	(△2.9)	(△6.4)	(△7.0)
	輸 入	30.5	96.8	34.4	97.7
	(增減率)	(△39.5)	(△25.1)	(12.8)	(0.9)
輸出入差		33.6	66.9	25.6	54.6
東 南 亞	輸 出	26.4	72.2	28.1	72.4
	(增減率)	(△17.7)	(△15.9)	(6.5)	(0.2)
	輸 入	10.0	30.0	12.3	34.8
	(增減率)	(△32.8)	(△35.1)	(24.6)	(16.2)
輸出入差		16.5	42.3	15.7	37.6
中 國	輸 出	11.3	29.3	11.1	28.9
	(增減率)	(△2.2)	(△2.4)	(△1.6)	(△1.3)
	輸 入	5.4	16.9	6.1	17.6
	(增減率)	(△34.4)	(△25.6)	(△12.9)	(4.0)
輸出入差		5.9	12.4	5.1	11.3
中 東	輸 出	7.9	17.2	5.3	13.4
	(增減率)	(63.0)	(46.3)	(△32.5)	(△22.3)
	輸 入	9.8	31.9	8.0	24.9
	(增減率)	(△40.0)	(△39.5)	(△18.2)	(△21.8)
輸出入差		△1.9	△14.7	△2.7	△11.5
中 南 美	輸 出	8.0	19.2	6.7	18.2
	(增減率)	(△29.6)	(14.1)	(△15.6)	(△5.6)
	輸 入	1.8	5.3	2.0	5.5
	(增減率)	(△51.6)	(△43.1)	(10.1)	(2.7)
輸出入差		6.2	13.9	4.8	12.7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입 증가로 여행수지 흑자폭은 확대되었으나 특허권 사용료 등의지급이 늘어나 적자규모가 전월 0.1억달러에서 0.8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소득수지는 대외이자 지급증가로 적자규모가 3.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전월과 비슷한 1.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3월중 資本收支는 정부보유 한전주식의 해외 DR발행, 공공차관도입, 외국인 주식투자로 자본유입이 확대되었으나, 외화 증권의 상환, 예금은행의 해외 단기대출 증가 등으로 자본유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 2.4억달러의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투자수지를 形態別로 보면 證券投資에서 5.4억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내었으나, 직접투자와 기타투자에서는 각각 0.8억달러 및 2.3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였고, 主體別로는

### 경 상 수 지

(억달러)

	98年	98.3月	98.1~3月	99.3月p	99.1~3月p
經常收支	400.4	36.6	108.3	26.2	67.9
商品收支	411.6	37.3	97.0	28.9	71.2
輸出(FOB)	1,318.1	118.9	327.7	118.6	317.1
輸入(FOB)	906.4	81.6	230.7	89.8	245.9
서비스收支	3.8	△0.5	5.5	△0.8	△1.3
所得收支	△48.1	△3.9	△7.1	△3.7	△8.4
經常移轉收支	33.0	3.4	12.9	1.9	6.4

내국인 투자가 예금은행의 해외단기대출 증가 및 수출 확대에 따른 매입외환의 증가 등으로 13.8억 달러의 큰 유출을 보였고, 외국인 투자는 해외 DR발행, 외국인주식투자금 유입 등으로 11.6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한편, 기타자본수지는 海外移住費 支給 등으로 0.2억달러의 流出超를 나타내었다.

### 資 本 收 支

(억달러)

	98년간	98.3月	99.1~3月	99.3月p <sub>J</sub>	99.1~3月p <sub>J</sub>
資本收支 (A + B)	△39.9	△1.9	△9.7	△2.4	14.6
A. 投資收支	△42.2	△1.6	△9.2	△2.2	15.1
直接投資	3.9	△1.8	△3.4	0.8	3.2
證券投資	△19.9	13.2	38.7	△5.4	4.8
其他投資	△26.1	△12.9	△44.5	2.3	7.1
資產 (內國人投資)	△16.1	△10.5	△9.3	△13.8	10.3
直接投資	△47.6	△3.7	△8.4	△2.5	△7.4
證券投資	△16.5	5.8	12.1	1.3	△1.0
其他投資	48.0	△12.6	△13.1	△12.6	18.8
負債 (外國人投資)	△26.1	8.9	0.1	11.6	4.8
直接投資	51.4	1.8	5.0	3.3	10.7
證券投資	△3.4	7.5	26.6	△6.7	5.8
其他投資	△74.1	△0.4	△31.4	14.9	△11.7
B. 其他資本收支	2.3	△0.4	△0.5	△0.2	△0.5